

경기침체로 건설·관광연계 산업 '고용 한파'

작년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산업별 총 이직자 8195명
산업별 이직률 건설업 4.8%, 숙박·음식점업 4.4% 순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해고·방출 등 비자발적 이직 많아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제주의 주요산업인 관광업 연계 산업과 건설업 종사자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서의 이직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산업 종사자는 22만9576

명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 3만명 이상으로 종사자 수가 많고 도소매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2만명대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기간의 입직자는 5450명인 반면 이직자는 8195명으로 2745명(50.4%) 더 많았다. 입직률은 2.5%, 이직률은 3.7%로 입직보다는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이직 사례가 뚜렷했다.

산업별 이직자는 숙박·음식점업이 137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981명, 도소매업 79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86명 등이다.

산업별 이직률에선 건설업 4.8%, 숙박·음식점업 4.4%, 부동산업 3.9% 등이 제주지역 평균 이직률을 앞섰다. 특히 해고나 방출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자는 건설업 632명, 교육서비스업 374명, 숙박·음식점 302명 등으로 많았다. 소비심리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발적 이직에선 숙박·음식점업 종사자가 1037명으로 전체 자발적 이직자 3635명 중 28.5%를 차지했다.

불경기로 인한 휴·폐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증가하며 국내 사업체 종사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는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4만5000명), 도소매업(-2만2000명), 숙박·음식점업(-1만5000명), 제조업(1만3000명) 등의 종사자 수가 줄었다.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는 135만명으로 19개월 연속, 제조업 종사자는 372만5000명으로 2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서빛중학교 개교 앞두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제주시는 내년 서빛중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애조로~성지고양원 확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억원을 투입해 외도지구와 애조로를 연결하는 230m 도로를 폭 15m로 확장하게 된다.

이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해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빛중학교 설립이 확정되면서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 도로의 준공을 서빛중학교 개교 예정 시기인 2027년 3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는 이번 시행 구간 외에 사업 참여 구간인 애조로~서빛중학교(길이 1350m) 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시 도시계획과장은 "서빛중학교 개교에 맞춰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포구 뒤덮은 팽생이모자반 지난 7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에 제주바다 불청객인 팽생이모자반이 쌓여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론화 절차 본격화 의제숙의단, 워크숍 후 원탁회의 거쳐 대안 권고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한 속의형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한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은 이번 사업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1단계 '의제숙의 워크숍'과 2

단계 '100인 원탁회의' 등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공론화의 첫 관문인 '의제숙의 워크숍'은 오는 21~22일 진행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서 발생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민 100인이 참여할 원탁회

의에 상정할 의제에 대한 대안을

개발한다.

워크숍을 이끌 의제숙의단은 도로·환경·교육·환경영향평가 등 4개 분야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정상 추진을 주장하는 마을회와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4명, 학생과 청소년 대표 등 미래세대 그룹 6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의제숙의단이 워크숍에서 핵심 의제를 도출해 상정하면 앞으로 구성될 '100인 시민참여단 원탁회의'는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 권고안을 채택한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전부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 실장은 제주시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 방향을 묻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질문에 "공무직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길 희망할 경우 무기계약 신분의 공무직 형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겸토한 끝에 (공무직과 일반직을 나누는) 이중적인 신분보다는 단일 신분(일반직) 체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은주 제주시시설관리공단추진단장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한 결과 직군을 달리했을 경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일반직으로 일원화 해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전부 일반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 실장은 제주시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 방향을 묻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질문에 "공무직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길 희망할 경우 무기계약 신분의 공무직 형태가 아니라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 겸토한 끝에 (공무직과 일반직을 나누는) 이중적인 신분보다는 단일 신분(일반직) 체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정은주 제주시시설관리공단추진단장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검토한 결과 직군을 달리했을 경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일반직으로 일원화 해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지금처럼 민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맡길 때보다 연간 7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비용 추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77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두리뭉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무직 없이 일반직으로 채용해도 인건비는 유사하게 설계할 수 있고, 공단 설립 시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을 줄일 수 있어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대정읍 무릉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선정 사업비 111억 전액 국비로 배수로·우수저류시설

집중호우 때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지역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로 '대정읍 무릉지구'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사업비 111억원은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정부의 배수개선사업은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50㏊ 이상의 농경지 침수지역에 배수로, 우수저류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무릉지구는 밭작물 재배가 집중된 지역인데, 배수시설 미비와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집중 호우 때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이용률 향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된 모습. 서귀포시 제공

서 근본적인 배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무릉지구가 배수개선사업 신규 지구로 지정되면서 수면면적 64.6㏊, 유역면적 140.6㏊ 규모로 배수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이용률 향상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문미숙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무병묘>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도내 / 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식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010-4450-4316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002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설시 완료업체

